

일본의 캐주얼 옷감 - 대미 수출이 점차 증가

일본의 방직회사의 말에 의하면, 미국 어패럴 업체가 캐주얼용 옷감을 해외로부터 구매하는 희망가격은 CIF(cost, insurance & freight : 생산 원가에 보험료와 선박 운임을 가산한 가격) 값으로 캐주얼 감 1야드에 3달러가 한도라고 하는데, 이 값이 일본의 제조업자들에게는 너무 싸서 지금까지는 미국으로부터의 주문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, 현재 엔화의 값이 1달러에 130엔 대까지 떨어져 이 수준 시세라면 미국 어패럴 기업의 구입희망 상한가격(購入希望上限價格)이하로도 채산을 맞출 수 있게 되어, 그 동안 일본 원단의 수입을 중지하고 있던 미국의 큰 어패럴 전문점들도 일본의 옷감을 다시 사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.

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납품을 보통 주문을 받고 나서 1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, 납기가 긴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완납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고 한다.

주문량은 단위량이 그전보다는 적어졌다고 하나 몇십만 야드가 보통 수준이며, 지금은 이와 같은 대로트·단납기(大lot·短納期)주문이 산발적(散發的)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므로 생산 스페이스(生産 space)를 즉시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수출계약의 성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.